#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방글라데시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023년 7월 20일 | 조사역(G3) 김성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경제연구소

# 국가개황

## 일반개황

| 면적 | 인구 | 정치체제 | 대외정책 |
|---|---|---|---|
| 148천 ㎢ | 1.7억 명 (2023f) | 의원내각제 | 비동맹중립 |

| GDP | 1인당GDP | 통화단위 | 환율(U$기준) |
|---|---|---|---|
| 4,602억 달러 (2022) | 2,731달러 (2022) | Taka | 91.75 (2022) |

□ 벵골만 연안에 위치한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면이 인도와 접하고, 남동부 지역 일부가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세계 8위(아시아 5위)의 인구대국으로, 소득수준 향상시 내수시장 성장이 기대됨.

□ 1947년 인도(힌두교)와 파키스탄(이슬람교)이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할 당시, 이슬람교를 믿는 동벵골 지역(현 방글라데시)은 파키스탄의 일부인 동파키스탄으로 편성되었음. 이후 파키스탄 중앙정부의 차별정책에 반발한 동파키스탄이 지속적으로 독립을 요구한 끝에 1971년 아와미 연맹(Awami League)을 주축으로 한 독립군이 인도 정부의 지원으로 독립전쟁에 승리하면서 방글라데시를 건국하였음.

□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봉제업 외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나,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정책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2018년 최빈국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2026년 정식으로 최빈국을 졸업할 예정임.

□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의 3연임으로 정치는 안정적인 편이며, 실리주의 외교를 통해 중국, 인도 등 강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3. 12. 18 수교(북한과는 1973. 12. 16)

**주요협정** 무역경제협력협정('73년), 항공협정('79년), 문화협정('79년), 사증면제협정('83년), 이중과세방지협약('84년), 투자보장협정('88년), 경제기술협력협정('95년), 과학기술협력협정('95년),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97년), 군수방위산업협력양해각서('04년), 무상원조협정('14년)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 구분 | 2020 | 2021 | 2022 | 주요품목 |
|---|---|---|---|---|
| 수 출 | 1,033,331 | 1,635,854 | 2,356,959 | 석유제품, 철강판, 합성수지 |
| 수 입 | 392,918 | 551,613 | 677,273 | 의류, 신변잡화(신발, 가방 등), 동제품 |

**해외직접투자현황(2023년 3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345건, 440,976천달러

##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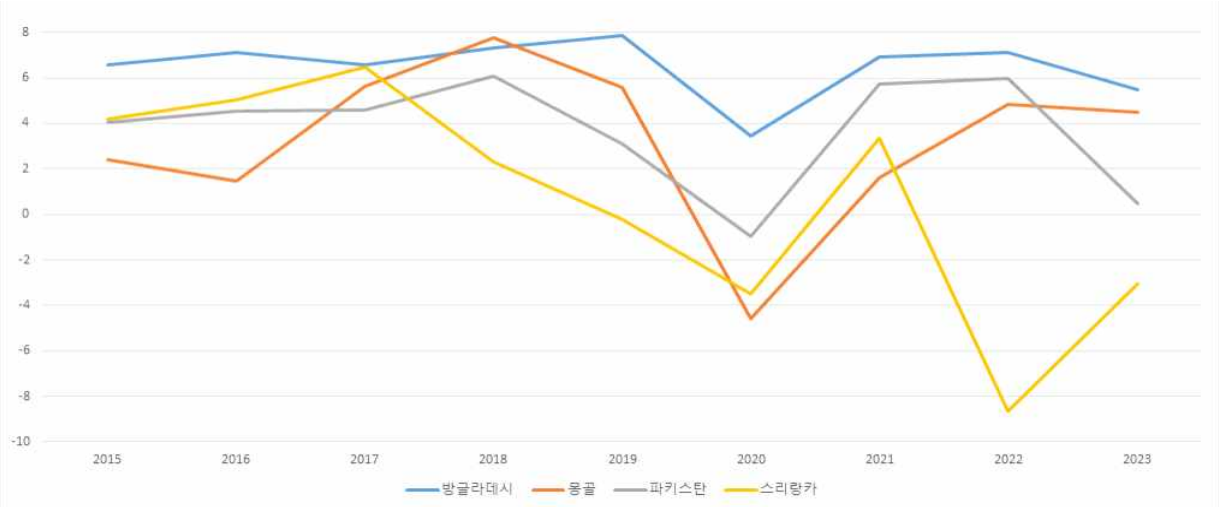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f |
|---|---|---|---|---|---|
| 경 제 성 장 률 | 7.9 | 3.4 | 6.9 | 7.1 | 5.5 |
| 소비자물가상승률 | 5.5 | 5.6 | 5.6 | 6.2 | 8.6 |
| 재정수지/GDP | -5.4 | -4.8 | -3.6 | -3.8 | -5.6 |

자료: IMF, EIU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적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플러스 경제성장 지속

- 방글라데시 경제는 2010년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5% 이상의 성장을 기록함. 2020년에 주변 타 국가들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할 때에도 3.4%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경제성장을 지속했으며, 2022년에는 7.1%의 성장을 기록하였음.

[그림 1] 방글라데시 및 여타 신흥개도국들의 경제성장률 비교(%)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April 2023).

- 이러한 방글라데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거대한 시장인 중국 및 인도와의 인접성, 세계 8위 인구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더불어 주변 경쟁국에 비해 젊고 저렴한 풍부한 노동력이 뒷받침된 결과임.

- 1970~80년대까지 유지되던 전통적인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 확대로 개편하고, 특히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섬유·봉제 제조업에 세제 및 인프라 지원 혜택을 집중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였음. 아울러 2026년에 졸업 예정인 UN 지정 최빈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 지위를 적극적인 원조자금 수혜와 외국인투자 유치에 십분 활용해 왔음.
- 또한, 세계은행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2022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64세 이하) 비율은 68%로 주요 경쟁국인 캄보디아(65%), 필리핀(64%)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젊은 노동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됨.

##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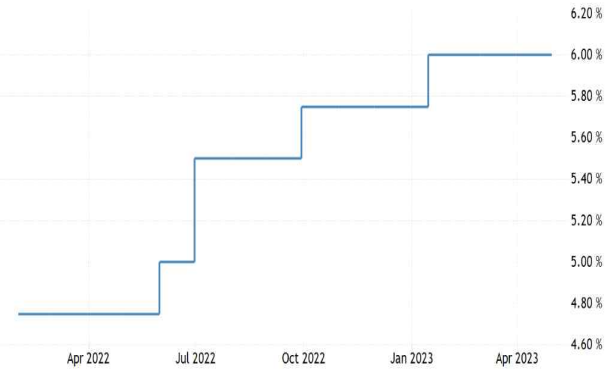
### 대중교통 요금 22% 인상, 연료 가격 50% 인상 등으로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2% 기록

- 방글라데시 정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와중에 2022년 8월 초 디젤 등 연료 가격을 40~50%, 대중교통 수단인 공공 버스 요금을 22% 인상한 결과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2%에 달했음. IMF는 방글라데시의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8.6%로 예측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석유-가스 가격 및 전력 요금 상승 등으로 6%대 중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코자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4차례 인상하여 현재 6%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초까지 현재의 긴축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EIU). 2020년 4월 도입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한선(9%)이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상쇄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지난 1월 중앙은행은 상한선 정책 철회를 결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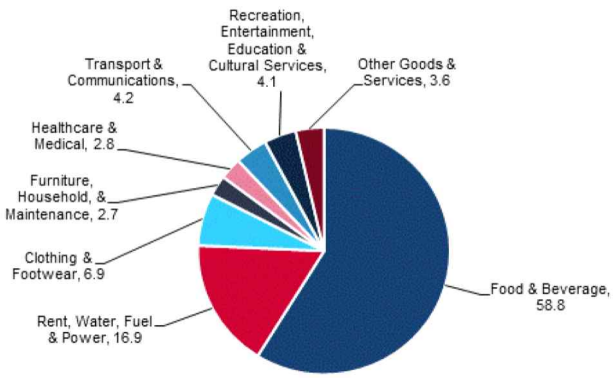
- 2022년 11월 말부터 야당인 방글라데시 국민당(BNP)의 주도로 수도 다카에서 생활비 상승, 정전,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한 항의로 발발하며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음.

[그림 2] 방글라데시 기준금리 추이('22.4월~'23.4월)




자료: TradingEconomics,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그림 3] 방글라데시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자료: Fitch Solutions,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 IMF로부터 총 47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경제안정을 유지할 전망

- 2023년 1월 30일 IMF 이사회는 방글라데시에 대한 총 47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 제공을 승인함. 다만, 방글라데시는 앞서 IMF에 지원을 요청한 파키스탄, 스리랑카와는 달리 경제적 위기에 놓이지 않았으며, 높은 식료품 가격과 주요 수출품인 기성복의 국제수요 감소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예방적 조치의 형태로 IMF 지원을 요청한 상황으로, 거시경제 안정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IMF는 이번 지원이 방글라데시의 거시경제 안정 유지, 취약계층 지원 및 녹색성장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방글라데시 정부에 새로운 개혁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보다 현재 추진 중인 개혁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음.

- 지원 내역은 33억 달러 규모의 확대신용공여(ECF, Extended Credit Facility)와 확대금융공여(EFF, Extended Credit Facility) 및 14억 달러 규모의 회복·지속가능성자금(Resilience Sustainability Facility)임.

## 국내경제

- ECF와 EFF는 단기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MF의 전통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며, RSF는 기후변화 영향 등 중장기적 요인 대응을 위해 IMF가 2022년 10월 도입한 금융지원 제도임. 방글라데시는 RSF 지원을 받는 첫 국가가 되었음.
- 개혁 내용으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GDP 대비 조세 비중의 확대, VAT법 이행 및 부실 금융 관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금융권의 부실여신 비중 10% 이내 축소 및 적정 자본비율 12.5% 수준 유지, 연료 가격의 주기적 조정, 기후변화 관련 제안 이행, 공적 채널에 의한 해외노동자 송금 비중 확대, 사회적 지출 및 맞춤형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확대, 환율 유연성 증대, 자본 및 채권시장 개발, 수출 확대 및 다변화, 통화정책 현대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 2024년 예정된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 악화 전망

- 2023년 6월 방글라데시 재무장관은 2023/24회계연도 예산을 발표하였음. 총 예산지출액은 7.62조 타카화(738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2022/23회계연도 예산보다 15.3% 증가한 금액임. 내년 1월 예정된 총선을 앞둔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을 유지, 가격이 크게 오른 비료, 식량, 전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줄이지 않아 공공지출에 부담을 주어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방글라데시는 GDP 대비 3~6%에 해당하는 재정수지 적자와 1~4%에 해당하는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두 수치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적채무 이자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Fitch Solutions는 금리가 11~12%대에 이르는 국민저축증서(National Savings Certificates, NSC)[1] 발행을 통한 재정자금 조달을 5% 금리의 국채 발행으로 전환하여 공적채무 이자비용을 줄이겠다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발언과 달리 매년 NSC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방글라데시의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4~6%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였음.
- 방글라데시 정부의 비료, 식량, 전기 등 보조금 및 공적채무 이자 지출은 2023/24회계연도의 첫 8개월(2023년 7월~2024년 2월) 간 전년 대비 45% 급증한 8,947.3억 타카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보조금으로 전년 1,557.5억 타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3,325.1억 타카, 국내외 대출 이자 상환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한 5,622.2억 타카를 지출하여 재정적자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방글라데시의 GDP 대비 세입 비율이 역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점 또한 재정수지 적자 지속을 뒷받침하고 있음.
- IMF 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2023년 GDP 대비 세입 비율은 8.8%로, 같은 남아시아 국가인 인도(19.1%), 파키스탄(12.2%), 네팔(21.6%), 부탄(25.5%), 몰디브(29.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1) 방글라데시 국민저축은행(National Saving Bank of Bangladesh)의 역할을 하는 정부 부처인 국민저축부(Department of National Savings)가 발급을 담당하는 저축증서(원금이 보장되는 채권과 유사한 개념). 방글라데시 전역의 우체국에서 매입할 수 있으며, ①5년 만기 이자율 12.2%의 Family Saving Certificates, Pensioner Saving Certificates, Bangladesh Saving Certificates, ②5년 만기 이자율 11.8%의 Wage Earner's Saving Certificates, ③3년 만기 이자율 11.8%의 Quarterly Profit based Savings 등이 있음.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 구 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경 상 수 지 | -2,949 | 1,193 | -15,775 | -14,370 | -13,877 |
| 경상수지/GDP | -0.8 | 0.3 | -3.8 | -3.1 | -3.3 |
| 상 품 수 지 | -15,929 | -16,394 | -32,617 | -29,792 | -29,466 |
| 상 품 수 출 | 38,747 | 32,456 | 41,816 | 51,868 | 56,277 |
| 상 품 수 입 | 54,676 | 48,850 | 74,433 | 81,660 | 85,743 |
| 외 환 보 유 액 | 30,648 | 41,036 | 42,851 | 30,050 | 30,492 |
| 총 외 채 | 63,160 | 76,236 | 94,010 | 99,307 | 103,831 |
| 총외채잔액/GDP | 18.0 | 20.4 | 22.6 | 21.6 | 24.7 |
| D.S.R. | 5.5 | 6.9 | 5.6 | 5.0 | 9.3 |

자료: IMF, EIU

### 높은 수입 의존도 및 인프라 개발 사업을 통한 경상수지 적자 지속 예정

- 방글라데시는 석유, 화학비료, 수출용 기성복 원자재 및 건설용 기계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최근 석유 및 원자재 수입가격의 상승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전망임. 방글라데시 상품수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유럽(미국 17.4%, 유럽 58.2%, 2021년 UNCTAD 기준)의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2023년에는 수출 증가세가 전년보다 현저히 둔화할 것으로 전망됨.

-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교통, 통신, 전력 등 인프라 환경은 FDI 유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루푸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교량 건설 등 인프라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 급증으로 이어져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방글라데시는 최근 6년 간(2017~22년) 2020년을 제외하고 경상수지가 적자를 지속하면서 지속적인 타카화 환율 상승과 외환보유액 고갈의 압박을 받고 있음.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환보유액의 압박으로 인해 비필수품 및 사치품의 수입 비허용,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의 해외여행 금지와 함께 송금 수수료 면제 등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 증가 유인을 위한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상수지 적자 폭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방글라데시는 각국의 운영 리스크(operational risk)를 평가하는 FitchSolutions Operational Risk Index 2022 보고서의 공급망, 교통, 인프라 기반 등을 평가하는 Logistics Risk 부문에서 202개국 중 113위를 기록하였으며, 비즈니스 환경을 평가하는 EIU Business Environment Ranking 2023 보고서에서는 82개국 중 70위를 기록하는 등 열악한 인프라 환경으로 비즈니스 환경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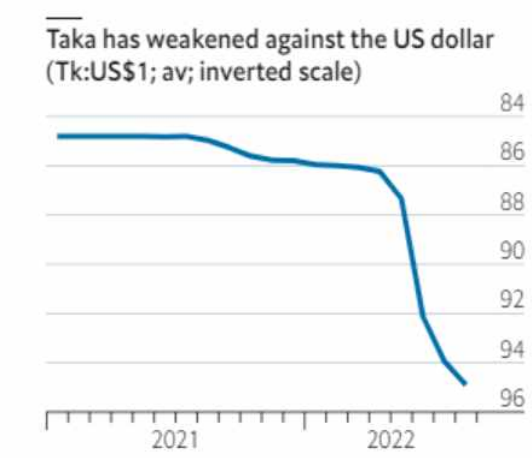
## 대외거래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한 외환보유액 감소 및 타카화 평가절하 심화

- 방글라데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각국의 긴축 경제정책으로 인한 수출액 감소, 해외 노동자 송금유입액 감소 등으로 외환보유액 감소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방글라데시 타카화의 약세를 초래하였음. 여기에 총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져 타카화의 가치 하락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타카화 환율 안정을 위해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2일까지 외화준비금 62억 달러를 투입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였음. 그 결과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461억 5,000만 달러에서 2022년 6월 1일 421억 1,000만 달러로 감소하였음. 아울러 2021년 7월~2022년 4월 간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1%나 증가한 686억 6,000만 달러를 기록, 수입대금 결제 부담이 커지고 달러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음.
- 이에 2022년 6월 3일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타카화 환율이 평가절하하도록 방치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후 타카화 가치가 달러 대비 15% 이상 하락하는 약세를 거듭하여 2023년 4월 초 미 달러 대비 107.7타카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자 중앙은행은 다시금 암암리에 외환시장에 개입하였으나, IMF가 47억 달러의 자금 지원 조건으로 환율 변동의 자율성 강화를 요구하자 2023년 6월 18일 재차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 운용'을 선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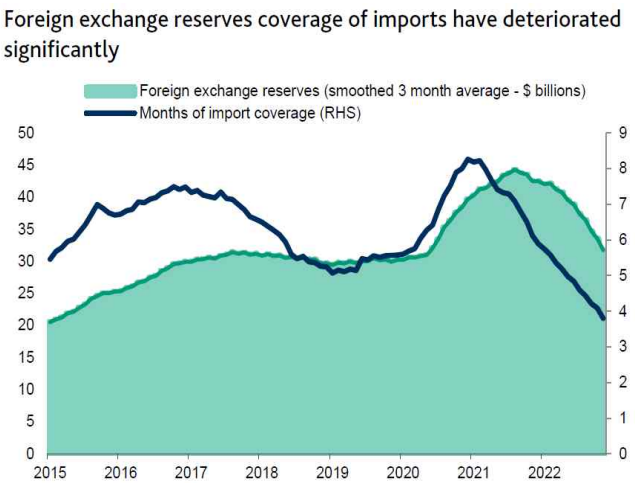
- EIU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의 채택을 선언하였지만, 이미 1년 전 같은 선언을 한 이후 외환시장에 개입한 전력이 있음을 감안할 때 타카화 가치의 극심한 변동을 막기 위해 향후에도 외환시장에 주기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예상함.

[그림 4] 미국 달러화 대비 타카화의 평가절하(%)




자료: EIU

[그림 5] 방글라데시의 외환보유액 및 수출액 추이 (십억 달러)




자료: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Mood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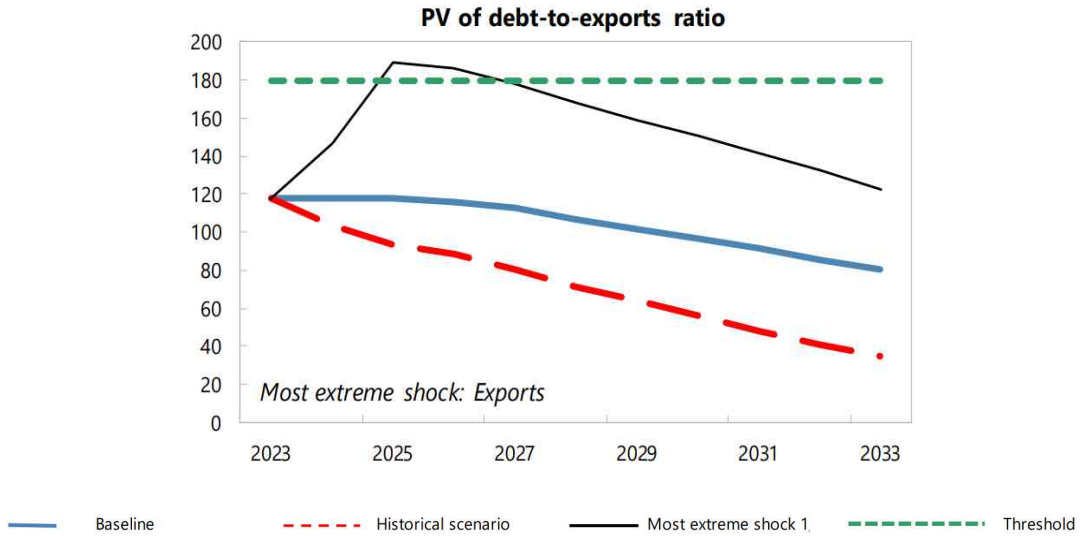
## 외채상환능력

###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외채규모 유지

- 방글라데시의 외채상환능력은 단기적으로는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유럽의 수입수요 감소, 원자재 수입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 속도가 저하되고 대외차입이 증가함에 따라 IMF의 DSA(Debt Sustainability Analysis, 채무지속가능성 분석보고서)[2]상의 수출액 대비 공적부채 비율이 임계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과 세계은행을 포함한 개발 파트너 프로그램에 따른 추가 외부자금 조달 및 가속화되는 개혁에 따라 이전의 성장을 넘어서며 단기적 외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공적외채 비율이 감소하여 이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안정적인 외채상환능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타카화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2023회계연도의 수출액 대비 부채 비율 및 수출액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은 이전 회계연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임. 또한 2025년부터 2년 간 발생하는 IMF DSA의 수출 대비 공적부채 임계치 초과 예상은 코로나19와 회복 기간에 발생하는 수출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

[그림 5] 방글라데시 공적외채의 현재가치/총수출(%)




자료: IMF Country Report, Bangladesh, No.2023/066(2023.2.2.); Debt Sustainability Analysis(2023.1.17.)

2) IMF Country Report, Bangladesh, No.2023/066(2023.2.2.); Debt Sustainability Analysis(2023.1.17.)

## 구조적취약성

### 의류 제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산업구조

- 방글라데시의 임금수준은 아시아 내에서 가장 낮은 편으로, 근로자 평균임금이 중국의 1/4 및 인도의 1/3 수준에 불과함. 최근 중국 내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노동시장의 규제가 강화되는 등 사업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방글라데시와 주변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음. 또한 방글라데시는 UN 지정 최빈국이라는 조건을 통해 선진국들로부터 GSP(일반특혜관세), EBA(EU가 저개발국들로부터의 수입에 적용하는 무관세, 무쿼터 혜택) 등 여러 무역 관련 특혜를 적용받아 의류 제조업이 핵심 산업으로 성장함.

- 그러나 현재 방글라데시 경제는 의류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져 외부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의류제품 수출이 전체 상품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시장 또한 EU와 미국이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거나 수출 과정에서의 특혜 철회 등 외적 변수 발생 시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추정됨.

- 방글라데시는 중국에 이어 의류 수출 세계 2위 국가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2020년 이후 의류 제조업 분야의 급속한 성장을 이룬 베트남과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음. 2020년 일부 기간동안 방글라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악화로 큰 타격을 입어 베트남에 2위 자리를 내어준 바 있음. WTO에 따르면 현재 방글라데시의 의류 제조업은 제품 품질, 배송 기간, 지속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베트남보다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베트남 등 경쟁 국가들이 단순 제조업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 최빈국 졸업으로 인해 2026년 이후 기존에 누리고 있는 관세 혜택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의류 제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됨.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 증가

- 방글라데시는 우기에 몬순 폭우가 지속되는 열대 기후로 기존에도 6~10월 사이 대부분의 강우량이 집중되어 홍수 및 사이클론(열대성 저기압) 피해가 주기적으로 발생해 왔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이른 시기에 우기가 시작되거나 강우량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추세임.

- 또한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약 60%가 해발 5m 이하의 저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우기에 장기간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 홍수에 의한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어 이러한 피해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Germanwatch의 글로벌 기후위험지수 보고서는 지난 20년(2000~19년) 간 기후 관련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국가 상위 10개국 중 방글라데시를 7위로 꼽음. 20년 간 방글라데시가 입은 기후 관련 피해 건수는 총 185건이며, 피해 규모는 18억 6천만 달러(구매력 기준)로 추산됨.

- 2020년 발생한 사이클론 '암판'으로 90여 명이 사망하였으며, 2023년 5월 발생한 대형 사이클론 '모카'의 상륙으로 인해 50만 명이 대피하고 최소 3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 2022년 4월 시작된 홍수 피해로 약 2개월 동안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72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됨. 3일간 총 2,500mm의 폭우가 내렸는데 이는 100년 만의 강우량 최고치로,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심화될 수록 이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더욱 높은 빈도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성장잠재력

### 저렴하고 풍부한 젊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국을 대체할 봉제·의류 산업 발달

- 2023년 기준 세계 8위 수준인 약 1.7억 명(IMF World Economic Outlook 추정)의 인구에 기반한 저임금 노동력(8,000타카, 약 75달러)을 바탕으로 섬유·봉제 산업을 발전시키며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음. 2021년 기준 방글라데시에 소재한 약 5천 개의 섬유·봉제 업체들은 직·간접적으로 약 2,000만 명의 생계를 책임지며 방글라데시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여 산업 보건 및 안전 문제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 근로 감독관을 충원하는 등 섬유·봉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있음. 또한 2026년 UN의 최빈개도국(LDC) 지위 졸업 대응 방안으로 수출의 다각화와 운송 기반시설 확충 등 적극적인 노력을 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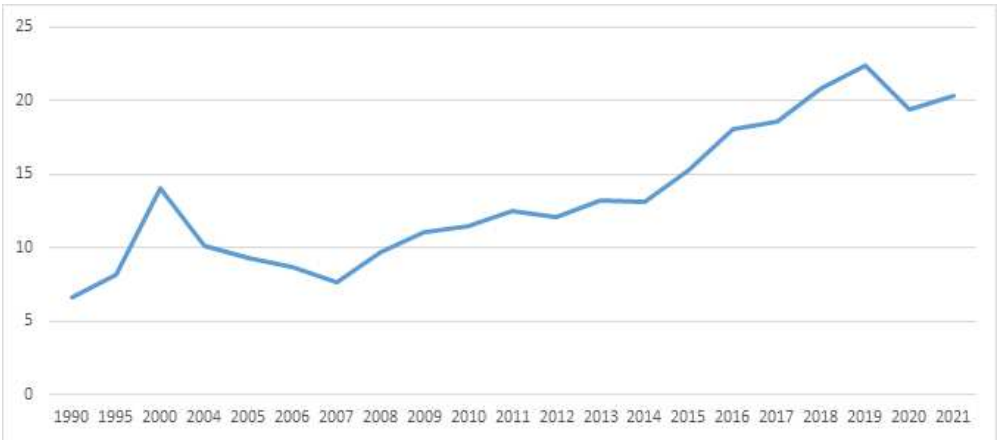
- 최근 급격히 인건비가 상승하는 중국보다 저렴한 노동력과 미-중 무역전쟁 및 경쟁으로 인해 방글라데시가 중국으로부터의 봉제·의류 산업 점유율을 가져오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관세를 피할 수 있고, 낮은 인건비, 풍부한 노동력 및 최빈국 지위를 통한 유럽 등에서의 GSP 혜택을 얻는 점 역시 중국을 대체하는 봉제의류 산업으로 발전하는 요인이 되었음.

[표 1] 방글라데시와 중국의 의류 수출금액 추이 비교(백만 달러)

| 구분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5 | 2020 | 2021 |
|---|---|---|---|---|---|---|---|---|
| 방글라데시 | 643 | 1,969 | 5,067 | 6,890 | 14,855 | 26,603 | 27,741 | 35,812 |
| 중국 | 9,669 | 24,049 | 36,071 | 74,163 | 129,820 | 174,573 | 141,501 | 176,050 |

자료: WTO

[그림 6] 중국 대비 방글라데시 의류 수출금액 비율 추이(%)




자료: WTO

## 성장잠재력

### 일본, 중국, 인도 등 우호국 및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한 인프라 개발

- 방글라데시는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의 부족이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열악한 환경의 개선을 통해 베트남 등 여타 아시아 개도국들에 아직 못 미치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증가시키려는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음. 정부의 개혁 의지와 더불어 여러 국가 및 기구의 재정지원을 통해 인프라 환경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빠르고 큰 규모의 경제성장이 기대됨.

- 방글라데시는 중립 외교를 유지하는 국가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려 노력하고 있음. 특히 일본은 방글라데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방글라데시 내 증가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2023~27년에 걸친 방위, 인프라, 농업, IT, 산업 개발 등을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일본은 방글라데시와 동남아시아의 지역 무역 연결성을 강화할 핵심 프로젝트로 마타바리(Matarbari)에 방글라데시 최초의 심해항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2025년 나라양간즈(Narayanganj)의 아라이하자르(Araihazar) 지역에 일본 경제특구가 구축될 예정임.
- 중국 국영기업이 건설을 맡아 2022년 6월 완공된 6km 길이의 파드마 대교는 파드마 강에 의해 상호 단절되어 있던 서부 19개 지역을 연결해줌. 이를 통해 수도인 다카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난한 남서부 지역과 나머지 지역의 경제적 통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 인도와의 우호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통해 디젤 수송 파이프라인이 개통되었음. 새로운 파이프라인은 연간 100만 톤의 디젤을 수송할 수 있어 방글라데시의 낙후된 북부 지역에 연료를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임.
- 방글라데시는 2023년 1월 승인받은 IMF의 47억 달러 지원 뿐 아니라 2023년 4월 세계은행(World Bank)으로부터 1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승인받았음. 세계은행은 2023~27년 방글라데시 신규 국가 파트너쉽 약정(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for Bangladesh)을 승인하여 방글라데시의 민간부문 발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금융 중개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정책성과

### Vision 2021,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이행으로 UN 최빈국 지위 졸업

- 방글라데시 정부는 중진국 진입을 목표로 2008년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인 'Vision 2021'을 발표하였음. 이를 통해 루푸르 발전소, 파이라 항만, 파드마 대교 건설 등 대형 인프라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힘입어 2018년에는 최빈국 졸업요건을 충족하며 2026년 실질적인 최빈국 졸업을 권고받았음. 졸업 준비기간 5년 중 실시되는 2024년 소득 그룹 분류 때까지 최빈국 소득 기준을 상회하면 2026년 공식적으로 최빈국 졸업을 승인받을 예정임.

- 방글라데시는 제7차 경제개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연평균 7.4% 성장,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통한 성장, 빈곤층 및 극빈층 비율 감소, 가용 노동력 고용 등 4대 중점과제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해 왔으며, 코로나19로 계획보다 다소 늦어졌지만 제8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설정하여 연평균 7.69% 성장,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확대 등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였음.

- 방글라데시는 LDC 지위 졸업으로 인한 무역특혜 상실을 완화하기 위해 11개 인도, 중국, 일본 등 11개 국가와 FTA를 향후 5년 안에 체결하겠다는 목표로 삼았음. 다만, 선진국과의 FTA 체결은 노동권, 인권, 안전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하기에 단기간 안에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표 2] Vision 2021 중장기 8대 목표

| 구분 | 세부 목표 |
|---|---|
| 1 | 참여 민주주의의 정착 |
| 2 |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투명하고, 분산된 통치 시스템 구축 |
| 3 | 빈곤 없는 중산층 국가 달성 |
| 4 | 건강한 시민들의 국가 달성 |
| 5 | 숙련되고 창의적인 인적자원 보유 |
| 6 | 세계적인 지역경제 및 상업 중심지로의 부상 |
| 7 |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 8 | 보다 포괄적이며 공정한 사회 형성 |

자료: 방글라데시 Vision 2021

[표 3] 방글라데시 제8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2020.7월~2025.6월)

| 구분 | 세 부 목 표 |
|---|---|
| 1 |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빠른 회복 |
| 2 | 경제성장 가속화 |
| 3 | 모든 시민의 개발 참여 및 취약계층 지원 |
| 4 | 지속가능한 성장 |
| 5 | 세계은행 기준 상위 중소득국(UMIC) 진입 |
| 6 | SDG 목표 달성 및 LDC 졸업에 따른 대응 |

자료: 방글라데시 제8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정치안정

### 정치 상황은 안정적이나 물가 및 선거 관련 시위 발생, 내년 총선 등 다양한 변수 존재

- 방글라데시 정치는 모하메드 샤하부딘 대통령(2023.4.24. 취임)과 3연임 중인 셰이크 하시나 현 총리의 소속 정당인 아와미연맹(AL)이 2018년 총선에서 총 의석 300석 중 288석을 차지하며 안정되어 있으나, 야당인 방글라데시 국민당(BNP)은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시위를 주도하며 2024년 예정된 총선에 변수를 만들고 있음. 지속되는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압박과 IMF에 의한 구조개혁 등으로 인해 반정부 세력이 점차 증가하며 정치적 안정성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총선을 앞두고 BNP의 당수이자 전직 총리로 현재 77세의 고령인 지도자인 칼레다 지아에 부과된 징역형 및 치료 목적 출국의 금지령으로 인해 BNP와 AL 사이의 정치적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시위와 반정부 세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EIU는 2024년 1월 예정된 총선에서 AL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더라도 AL의 의회 다수당 지위를 빼앗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BNP가 다당제 연대에 성공하더라도 AL에 비해 낮은 국민적 지지와 군부에 대한 낮은 영향력은 차기 정부를 꾸리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

### 방글라데시의 민주주의는 혼합형 체제로, EIU 민주주의 지수 167개 국가 중 73위 차지

- 방글라데시는 EIU가 2023년 3월 발표한 2022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서 총점 5.99점으로 167개 국 중 73위를 차지하였음. 이는 '혼합형 체제'(Hybrid regime, 4점 초과 6점 이하)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ies, 8점 초과) 및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 6점 초과 8점 이하)보다는 낮지만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s, 4점 이하)보다는 높은 등급임.

- 여당인 AL이 방글라데시의 정치를 지배하고 있으며, 야당인 BNP 지도자의 체포와 새로운 선거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여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2024년 총선에서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은 낮음.

## 사회안정

### 높은 물가 등 경제적 어려움과 정부의 부정부패로 인해 수도 다카에서 시위 촉발

- BNP의 주도로 2022년 12월 수도 다카에서 생활비 및 휘발유 값 인상, 잦은 정전 등에 항의하며 BNP 당수 할레다 지아의 석방,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퇴진, 중립적인 임시정부 하의 새로운 선거 등 10가지 정치적 요구 목록을 제시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음. 경찰은 시위 중 5,000명 이상을 체포하였으며, 무력 진압 과정에서 1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부상을 입었음.
- 2023년 3월 BNP는 또다시 시위 발생을 주도하였으며,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의 비정상적인 인상을 초래하여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비난함. 아울러 지난 2014년 및 2018년 총선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24년 1월 예정된 차기 총선의 보이콧을 선언하였음.
- 정부의 부정부패를 폭로한 기자가 괴한의 습격을 받거나, 높은 식료품 가격을 보도한 기자가 디지털 보안법으로 체포되는 등 언론의 자유가 탄압당함. 이에 UN 인권 최고대표와 국제기구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디지털 보안법의 즉각적인 적용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2022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방글라데시는 100점 만점에 25점으로 180개 국가 중 147위를 차지하였으며, 국경없는기자회에서 발표하는 2023 세계언론자유지수는 35.31점으로 180개국 중 163위라는 최하위권을 차지하였음.

### Moody's는 방글라데시의 ESG 신용영향점수를 5등급(Very Highly Negative)으로 평가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Moody's는 방글라데시가 매우 높은 사회적·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은행 제도와 법률 등 부정부패를 막을 수단이 열악해 추후 위험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글라데시의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Score)를 5등급(Very Highly Negatvie)으로 평가하였음.

- Moody's의 ESG 신용영향점수는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됨. 2021년 11월 Moody's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ESG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대한민국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있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대부분이 저지대 삼각주인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홍수에 취약하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자주 발생함. 또한 낮은 소득수준과 열악한 인프라의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기후 관련 사건들이 대형 위기로 발전하고, 지진과 몬순 기후에 따른 강우량 집중으로 농업에 미치는 피해 또한 심각한 수준이어서 농민들의 수입과 소비가 불안정함.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방글라데시의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극도로 부정적(5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최근 몇 년간 높은 경제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상승하고 빈곤율이 낮아져 기초적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열악한 인프라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부재, 국민 건강·보건 서비스와 노동자 권리의 열악함 등을 고려해 사회(Social) 영향은 극도로 부정적(5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부정부패에 대한 통제와 법치 과정의 어려움이 제도적 비효율성을 낳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며, 이러한 지배구조적 문제가 은행 자산의 안정성마저 위협하고 있음. 이러한 점들로 인해 방글라데시의 지배구조(Governance)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안정

### 로힝야족 난민 및 극단주의 이슬람 주의 단체로 인한 사회적 혼란 야기 가능

- 로힝야족은 무슬림 소수민족으로 미얀마 서부 지역에서 미얀마 군부의 차별과 탄압을 피해 인접국인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으로 이주해 온 난민임. 방글라데시 인근에서 활동하는 로힝야 무장단체(ARSA)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미얀마의 군사적 대치는 국지적인 교전의 위험성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의 본국 송환을 요청하고 있으나, 미얀마 군사 정권 통치가 계속되고 있으며 두 집단의 갈등이 지속되어 송환은 단기간에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이들을 위한 일자리, 의료지원, 교육 등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방글라데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로힝야족이 거주하고 있고 방글라데시와 가까운 지역인 미얀마 라카인 주에서 라카인 주의 자치를 위해 싸우는 반(反)로힝야족인 아라칸 군대와 미얀마 군부 간의 간헐적 분쟁으로 방글라데시 국경 안에 폭탄이 떨어지고, 영공을 침해당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
- 약 1,100명의 로힝야족의 미얀마 송환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나, 그들이 본래 거주하던 지역인 라 포 카웅 로힝야 마을이 미얀마 군부에 의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난민들에게 미얀마 시민권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갈등이 존재함.

-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2024년 1월 예정된 선거를 계기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하시나 총리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할 수 있음. 이들은 방글라데시 사회의 더욱 강력한 이슬람화를 요구하며 여러 시위를 조직하는 등 총선을 1년 앞둔 현재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음.

- 강경 이슬람 단체인 헤파자트-에-이슬람(Hefazat-e-Islam)은 방글라데시 내 영향력 있는 이슬람 단체로 부상하였음. 2021년 3월 이 단체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방문했을 때 그의 반이슬람 정책에 항의하며 기차, 버스, 힌두교 사원을 공격하였으며, 이 사건은 10여 명의 사상자를 낳았음.
- 2022년 10월 자마아툴 안사르 필 힌달 샤르키야(Jama'atul Ansar Fil Hindal Sharqiya) 신흥 무슬림 극단주의 세력 조직원이 체포되는 등 2017년부터 여러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 테러 공격을 자행하며 위협이 지속되고 있음.

## 국제관계

### 비동맹 중립 · 실리외교를 채택하고 있으나, 최근 러시아에 대한 중립 관계 불확실

- 방글라데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도-태평양 관계 등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실리외교를 펼치고 있었음. 다만, 방글라데시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EU의 대 러시아 제재로 2022년 10월 진행한 UN 규탄 결의안 찬성, 2023년 2월 러시아 선박 입항 금지 등으로 그동안 고수해왔던 러시아에 대한 중립적인 관계가 불확실해질 수 있음.
- 그러나 2023년 2월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비난하는 UN의 규탄 결의안 투표에는 기권하고, 러시아와의 무역거래를 이어가는 등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회피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전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착공되어 2024년 완공 예정인 루푸르 발전소 프로젝트 관련 대 러시아 부채 상환을 위해,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금융 제재를 피하고자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결정함.

## 외채상환태도

###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비율은 0.9%로 미미한 수준

- 2023년 3월 말 기준 방글라데시는 OECD 회원국 ECA 지원 잔액 44.4억 달러(단기 7.6억 달러, 중장기 36.8억 달러) 가운데 중장기 잔액 40.6백만 달러를 연체 중이며, 연체비율은 0.9%로 미미한 수준임.

##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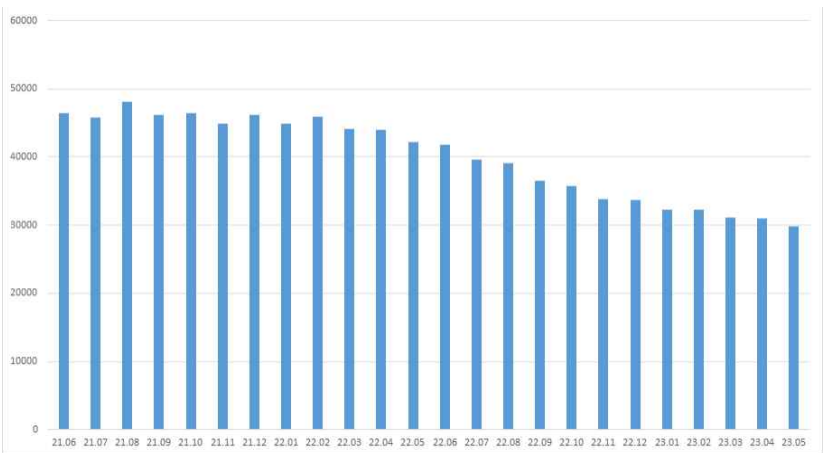
| 평가기관 | 최근 평가 등급 | 종전 평가 등급 |
|---|---|---|
| OECD | 5등급 (2023.06.) | 5등급 (2022.06.) |
| Moody's | B1 (2023.05.) | Ba3 (2022.03.) |
| Fitch | BB- (2022.09.) | BB- (2021.11.) |

### Moody's는 지속적인 외환보유액 감소를 이유로 방글라데시의 국가신용등급을 Ba3에서 B1으로 한 등급 하향 조정

- 방글라데시는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석유, 화학 비료, 식품, 원자재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주요 수출품인 기성복의 수요가 감소하며 경상수지 적자, 타카화 가치 하락, 외환보유액 감소를 동시에 겪고 있음. Moody's는 급격한 외환보유액 감소와 외부 취약성 및 유동성 위험성을 근거로 2023년 5월 방글라데시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등급 하향한 B1으로 조정하였음.

- 이같은 상황을 개선코자 방글라데시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사치품 수입 제한, 사무 시간 감소, 변동환율 제도로의 전환 등 다양한 조치를 하였음.

[그림 7] 방글라데시 외환보유액 추이(백만 달러)




자료: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 종합의견

- 방글라데시는 2010년 이후 코로나19 이전까지 연평균 6%를 넘는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2018년에는 최빈국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2026년 공식적인 졸업을 앞두고 있는 등 뚜렷한 경제성장 성과를 보임.
- 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제교역 위축으로 상품 수출이 감소하고 해외근로자 송금액도 감소함에 따라 경제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2022년 코로나19의 여파가 줄어들면서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전 세계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함.
- 하시나 총리가 이끄는 아와미 연맹(AL)이 2018년 총선에서 압승하여 장기집권의 토대를 구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른 성장 둔화, 실업률 증가 등으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는 등 최근 AL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며, 야당인 방글라데시 국민당(BNP)은 앞선 선거의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내세우며 2024년 총선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혼란이 존재함.
- 외환보유액 감소에 따른 IMF 구제금융 신청, 신용평가사 Moody's의 등급 하향조정 등 동국의 외국인 투자를 비롯한 지속적인 성장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